

현대 불교신문 인터넷 http://news.buddhapia.com



◀ 불상조성은 예술의 범주를 훌쩍 뛰어넘는다. 자연의 돌과 나무 속에서 불보살을 모셔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상조성의 모든 과정을 의식이라고 말한다. 사진은 해남 대흥사 천불전 불상모습.

나무와 돌이 부처되기까지

불 보살상을 만드는 29불교미술인(원장 허길량) 작업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이곳에는 부처님 고행상부터 보살상, 사천왕상 등을 조각하는 불모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그렇지만 말이 없다. 마치 성냥 같고, 작업장 중간에 자리하고 있는 덩치 큰 원목이 눈길을 잡는다. 범상치 않은 모습이다. 불모 허길량씨는 경기도 화성군의 한 마을을 지키는 당간 나무였다고 말한다. 도로 공사로 베어질 위기에 처하자 주민들이 불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해 왔다는 것이다. 허 씨는 요즘이 나무로 어떤 불상을 만들까 고민중이다.

불상(佛像). 부처님과 보살의 형상을 돌 나무 등으로 조각한 것을 뜻한다. 이렇듯 불상의 사전적 의미는 간단 명료하다. 하지만 평범한 나무와 돌에 지나지 않던 것이 근엄과 자비를 함께 갖춘 불보살상이 되기까지는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불상조성을 '자연 속의 환생'이라고 일컫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금속으로 주조한 불상과 석불이다. 특히 석불은 여러 형태가 있다. 전후 좌우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원각상, 석주 사면에 조각한 사면불, 감실 안에 모신 감불, 석굴에 조성한 불상 등이 있다. 하지만 불상 조각의 진수를 보여주는 것은 목불이다. 나무는 다른 재료와는 달리 생명력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섬세한 표현으로 조각 기술의 극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하나의 돌과 나무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불상으로 태어날까.

예로부터 불모들 사이에 전해오는 목불 조성법을 살펴보자.

은행나무, 소나무, 녹나무 등을 사용하는 목불 조성은 원목 선별에서부터 시작된다. 벌목은 주로 나무에 물기가 가장 적은 겨울에 이루어진다. 불상에 쓸 원목이 정해지면 우선 나무 둘레에 붉은 흙을 뿌리고 번(繭)을 건 다음 목신재를 정성껏 지낸다. 이렇게 해서 베어진 원목은 21일 동안 물에 담갔다가 겹질을 벗기고 1년 이상 건조한 다음 불상 만들기에 들어간다.

목불 조성법은 크게 일목식과 점목식 두 가지가 있다. 일목식은 불상 전체, 머리에서 발, 좌대까지 한 그루의 나무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점목식은 여러 나무를 이용하여 불상의 머리와 몸, 손 등을 따로 조각한 뒤 짝 맞추어 한 몸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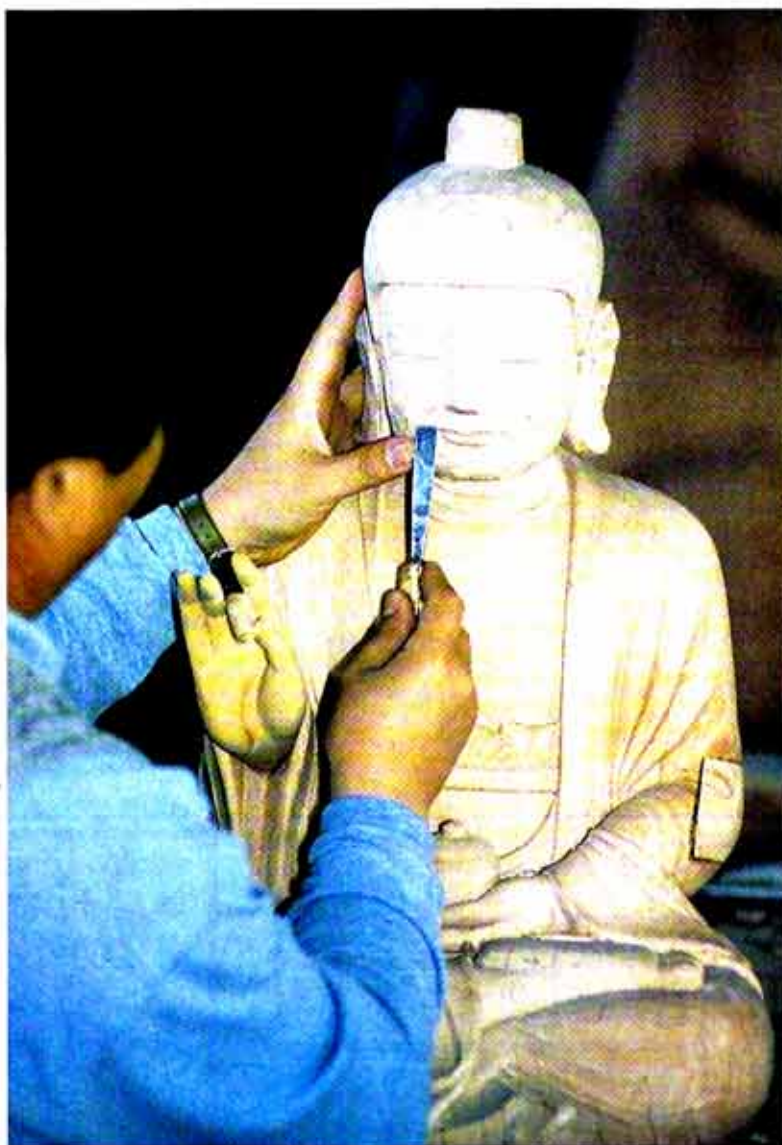
신앙대상이자 문화산물

점목식에서는 접착제를 많이 사용하는 데 밑가루에 송진과 토분을 섞은 감탕물을 주로 사용한다. 불상 조각이 완료되면 한약을 달인 물과 유황으로 깨끗이 목욕시킨다. 그리고 그 위에 여러 번 옷칠을 한다. 모가 나지 않아야 개금 작업이 원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성된 목불은 점안식 때까지 동쪽을 향해 놓고 황색가사를 덮어 놓는다. 그런 다음 점안식을 거쳐 신앙의 대상으로 불자를 가슴 속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다.

불상은 신앙의 대상일 뿐 아니라 한 시대의 문화적 소산이다. 작은 부분에도 혼신의 힘을 쏟아 붓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을 조성하는 불모들은 약 1백 여명에 이른다. 이들 대부분은 불상 조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이 원만한 상모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은 불모의 불혼과 비례하기 때문이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 불상조성에 있어 가장 어려운 작업이 상모를 표현하는 것이다. 혼과 불심 그리고 섬세한 조각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불모 허길량씨의 작업 모습.

현대의 불모들



◀ 권정학



◀ 박찬수



◀ 허길량



◀ 이진형

예로부터 부처님의 형상을 그리거나 조각가들을 일러 '불모(佛母)'라 불렀다. 부처님을 표현해 내는 일을 하는 자라 사람들이 스님 못지 않은 공경을 받았다. 이들 또한 작업에 들어가면 수행자 이상으로 몸과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며 원만한 부처님의 모습을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다.

지난 70년 조계종 제1회 불교 미술대전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불교 조각계에 등장한 권정학 씨. 불교 조각계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전해지는 권씨는 60년이 넘는 세월을 부처님 조성에 몰두해왔다. 10대 시절 형인 고 권정두 씨와 함께 당시 대표적 화승이자 조각가였던 양환호 스님 문하에서 수학했다. 최근에는 서울 관문사 옥불을 조성하며 81세의 고령에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다. 동생 권정환 씨도 불모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낙산사 예수 관음상이 그의 작품이다. 또한 권정학 씨의 아들 권영식 씨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불교 조각가의 길을 걷고 있다.

96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조각장으로 지정된 박찬수 씨는 목야박물관을 운영하며, 불자와 일반인에게 우리 목공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불교조각가다. 90년 개관한 목야박물관은 보통 3절을 비롯 6천여 점의 조각 작품을 전시해 명소로 자리잡았다. 박씨는 목불 조각

의 계보를 장르별로 체계화하는 연구를 평생의 과제로 삼고, 목조각에 열정을 쏟고 있다.

금어 우일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은 문화재 조각 615호 허길량씨는 77년 불교미술대전에서 '천수천안'으로 대상을 차지하며, 불교목공예의 장인으로 인정받았다. 동국미술인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문화재 기능인협회 총무이사로 활동중이다. 조계사 근처에 전사관 '대불공'을 열어 불교목공예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지난 99년 5월 대전시로부터 불상 조각장 무형문화재 제6호로 지정받은 이진형 씨. 68년 박찬수 씨와 인연으로 불교 조각계에 입문. 95년 불교조각가로는 처음으로 불교 조각 개인전을 열어 화제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현재 부산에 불교조각원을 열어, 후진 양성에 힘쓰고 있다.

이밖에도 불사의 현장에서 내일의 불모를 꿈꾸는 100여명의 불교조각가들이 활동중이다. 이은지 기자(ejee@buddhapi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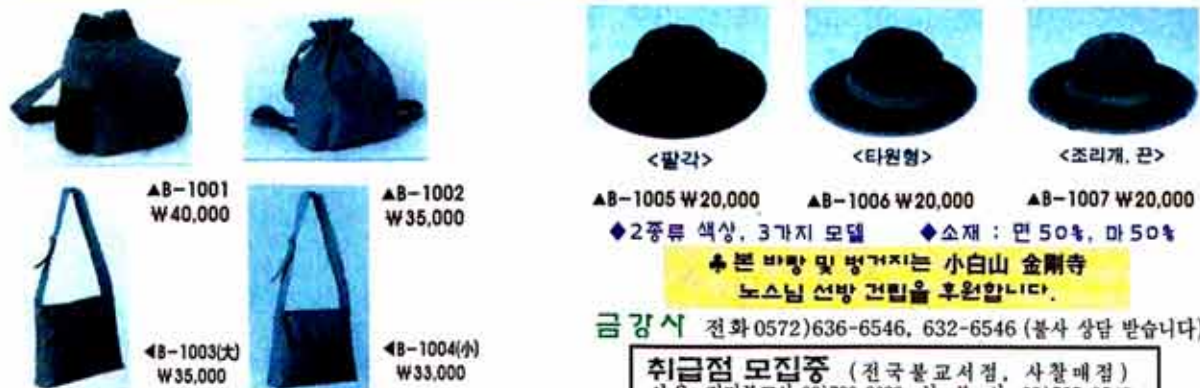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스님" 이젠 바꾸세요 "불자님"절에 갈땐 "바람"을 메세요

부릉자랑

- 비가와도 걱정이 없는 방수 바람
- 걸감은 면20수 이므로 촉감이 좋습니다.
- 안감은 솜자로 佛心を 담았습니다.
- 본 바람 제품은 수납공간이 많습니다.
- 본 바람은 품위있고 멋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 본 바람은 스님 및 재가불자를 위한 제품입니다.
- 2종류 색상과 4종류의 모델이 있습니다.

제조원 판매원 **진희무역(주)** 02)449-8844, 449-9100



온라인
구매
구
직

농협 061-17-001230 예금주
우체국 013805-0068619 (주)진희무역



<팔각> <티원형> <조리개, 끈>
AB-1005 W20,000 AB-1006 W20,000 AB-1007 W20,000

◆ 2종류 색상, 3가지 모델 ◆ 소재: 면 50%, 마 50%
* 본 바람 및 빗거리는 小白山 金剛寺
노스님 선방 건립을 후원합니다.

금강시 전화 0572)636-6546, 632-6546 (불사 상담 받습니다)

취급점 모집중 (전국 불교서점, 사찰매점)
서울 전지불교사 02)739-3032 성불사 02)735-3543
대성불교사 02)732-7375 제일불교사 02)735-0918
대북전 02)737-0969
부산, 대구, 광주, 대전